

SEONG-JIN CHO PIANO RECITAL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THE GENESIS G80

전기차 그 이상의 시작



■ 구입문의 및 고객센터 080-700-6000 ■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Electrified G80: 복합4.3km/kwh(도심4.5km/kwh, 고속도로4.1km/kwh) | CO₂배출량0g/km | 회충진주행거리427km | 축전지 정격전압(전류용량):522.7V(166.8h) | 공차중량2,265kg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의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않습니다 ※ 정속주행을 합니다 ■ 제네시스는 지점/대리점의 커마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도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바른 거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SEONG-JIN CHO
PIANO RECITAL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2021.9.7 TUE 7:30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21.9.7 (화)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피아노 | 조성진

레오시 야나체크

체코 1854-1928

피아노 소나타 Eb단조 1.X.1905

예감
죽음

모리스 라벨

프랑스 1875-1937

밤의 가스파르 M. 55

물의 요정
교수대
스카르보

CREDIA

인 터 미 션

프레데리크 쇼팽

폴란드 1810-1849

스케르초 1번 B단조 Op. 20

스케르초 2번 Bb단조 Op. 31

스케르초 3번 C#단조 Op. 39

스케르초 4번 E장조 Op. 54

-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THE GENESIS G80

전기차 그 이상의 시작



■ 구입문의 및 고객센터 080-700-6000 ■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Electrified G80: 복합 4.3km/kWh/도심 4.5km/kWh, 고속도로 4.1km/kWh | CO₂배출량 0g/km | 1회충전주행거리: 427km | 충전지정격전압(전류용량): 522.7V(166.8h) | 공기중량 2,265kg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않습니다 ※ 정속주행을 합니다 ■ 제네시스는 지점/대리점의 카마스타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도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빠른 거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7:30PM, Tuesday, September 7, 2021 at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Seong-Jin Cho, Pianist

L. Janáček

Czech 1854-1928

Piano Sonata 1.X.1905 in Eb minor

Predtucha

Smrt

M. Ravel

France 1875-1937

Gaspard de la nuit M. 55

Ondine

Le gibet

Scarbo



I N T E R M I S S I O N

F. Chopin

Poland 1810-1849

Scherzo No. 1 in B minor, Op. 20

Scherzo No. 2 in Bb minor, Op. 31

Scherzo No. 3 in C# minor, Op. 39

Scherzo No. 4 in E Major, Op. 54

-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onic devices.
-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시네마 그 이상의 공간 오르페오

CREEDIA



2021 빈 필하모닉 여름음악회 &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9월 정규 상영

오르페오 한남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 35 사운즈한남 5F @ode.orfeo @오르페오 ☎ 02-512-4093

관람문의 오르페오 해운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92, 그랜드 조선 부산 B1 @ode.orfeo_haeundae ☎ 051-923-4091

존경하는 피아니스트 선생님이 한 인터뷰에서 밝힌 속내 섞인 고백은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다. “지금도 갖고 있는 못된 습관이 하나 있는데, 새로 만난 악보를 보면 손가락부터 돌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나라고 다를까. 무수히 얽혀 있는 음표들 사이를 헤매며 정신없이 건반을 두드려다 퍼뜩 정신이 든다. “과연 작곡가는 이 음표들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 굳이 ‘의식의 흐름’이나 ‘궁극의 메시지’ 등의 거창한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소리를 모아 좀 더 조화로운 소리(음악)를 만드는 작곡가에게는 자신의 가슴을 뚜렷이 강타해 여운을 남긴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굳이 많은 음이 아니라도, 그 이야기는 흥미로울 수 있다. 오래전 배웠던 모스크바 음악원의 교수님은 늘 ‘반복되는 음’에 대한 경고를 해주시곤 했다. “작곡가가 같은 음을 둘 이상 반복해서 사용했을 때, 피아니스트는 그 음을 저마다 다른 색채로 표현하려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의 이야기는 생명을 잃는다.” 작은 삽표, 띄어쓰기 하나라도 달라지는 작곡가 내면의 스토리를 파악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말보다는 음악으로, 피아노로 많은 이야기를 하는 조성진의 현명한 과묵함은 그래서 더욱 믿음직스럽다. 무대에서 내놓는 탁월한 해석은 그가 가지는 사색의 시간이 작곡가가 속삭이는 은밀한 이야기를 디테일까지 파악하는데 쓰인다는 증거다. 오늘의 프로그램은 신비와 공포, 희망과 절망, 신과 인간의 이야기가 공존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

야나체크 피아노 소나타 Eb단조 1.X.1905

조성진의 이야기는 인간의 이야기, 그것도 처절한 울부짖음에서 흘러나온 음의 사실화로 시작한다. 작곡가 레오시 야나체크는 1905년에 일어난 비극적 사건을 소재로 한 피아노 소나타를 만들었다. 그는 보헤미아와 슬로바키아 사이에 있는 모라비아에서 태어나 그곳을 중

심으로 활동했는데, 지역의 중심도시 브르노에서 1905년 일어난 사망 사건을 음악으로 묘사했다. 사건은 브르노에 대학을 설립하고자 집회를 갖던 체코 사람들을 당시 이 지역을 식민지로 지배하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독일인들이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집회에 참가한 프란치šek 파블릭이라는 젊은 노동자가 칼에 찔려 숨을 거둔 사건을 접하고 강한 충격을 받은 야나체크는 즉시 그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한 피아노곡을 작곡했다. 작품은 내용 이상으로 기구한 운명을 겪었다. 초연을 지켜보던 작곡가는 연주가 채 끝나기도 전에 피날레 악장을 파기해 버렸다. 나머지 두 악장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야나체크는 이 역시 블타바 강에 던졌으나 다행히 초연을 했던 피아니스트 루드밀라 투치코바가 악보를 지니고 있었고, 결국 이 작품은 1924년에 출판되어 세상의 빛을 보았다. 살아남은 두 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진 이 소나타의 첫 번째 악장은 ‘예감’이라는 제목이 붙어있으며, 슬프고 서정적인 멜로디와 거칠고 폭력적인 리듬이 교차해 듣는 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두 번째 악장의 이름은 ‘죽음’으로, 안타까운 희생을 슬퍼하며 피아노로 부르는 비가 풍의 약상이 반복된 선율로 탄식하듯 이어진다. 작품에는 ‘1905년 10월 1일’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데, 사건이 일어난 날짜다.

라벨 밤의 가스파르 M. 55

때로는 빼놓고 싶어도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 모리스 라벨의 걸작 ‘밤의 가스파르’(1908)를 설명할 때 들어가는 ‘최고의 기교를 달성한’ 작품이라는 내용이다. 분명한 사실은 라벨 자신이 밀리 발라키레프가 쓴 무시무시한 기교의 ‘이슬라메이’를 능가하는 어려운 작품을 쓰겠다고 선언했고, 결국 그 목표를 이뤘다는 것이다. 투박한 러시아적 비르투오시티를 능가하는 라벨의 무기는 기괴하고 그로테스크한 음향과 작품의 토대가 된 알르와지우스 베르트랑의 시(1836)에서 풍기

는 음산하면서도 유혹적인 분위기다. 거기에 더해 걸음 습은 냉담하고 무심한 듯하지만 수많은 음표들 사이를 연결하는 정감과 열정적 기분은 듣는 이들에게 작품의 난해함 자체를 즐길 수 있게 해준다. 작품명인 ‘가스파르’는 고대 페르시아에서 왕실의 보물을 지키는 사람을 뜻하며 시에서 그가 지키는 대상은 사물에 그치지 않고 신비스럽고 미스테리컬한 이야기를 품고 있다고 여겨진다. 가스파르는 어느새 교활하다 못해 악마와 같은 모습으로 지옥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놓는 시의 화자가 되어 있으며, 시어의 모호함은 라벨 특유의 유머 감각과 절묘하게 결합한다.

‘온단’은 물의 요정으로, 매우 유연하고 매끄럽게 흐르듯 움직여 주변의 존재들을 현혹한다. 자유로운 구성으로 보이거나 소나타 형식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화음 연타와 변화무쌍한 아르페지오는 부단히 건반 위아래를 오르내리며 사방으로 흩어지는 온단의 물방울들을 묘사한다. 큰 차이가 없는 두 개의 주제를 다채롭게 꾸미는 것은 독창적인 음형 변화와 화성의 뉘앙스 조절이다. 발전부가 매우 대규모이나 듣는 이들에게 강력한 기억으로 남는 것은 두 조성의 아르페지오가 파도 치듯 넘실대는 코다 부분일 것이다.

섬жит한 광경을 바라보는 시인의 시선은 ‘교수대’ 연주 내내 울리는 B플랫 음을 통해 마치 카메라의 각도가 미묘하게 변화하듯 바뀐다. 연속되는 이 울림은 중소리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미 교수대 위에서 움직이지 않는 죽은 자를 위한 헛된 울림처럼 들리기도 한다. 시종 화음으로 연주되는 멜로디는 장송곡풍이며, 미묘한 멜랑콜리가 풍기는 것은 지극히 프랑스로적인 정서다.

장난꾸러기 요정 ‘스카르보’는 시인의 방구석 어두운 곳에서 놀래키듯 나타나 어느새 달빛을 가리는 거대한 그림자로 커져 듣는 이들의 꿈속 환상을 헤집어 놓는다. 모두 열한 개의 파트로 나뉘어 자유롭게 구성된 작품은 가벼운 움직임을 내포하고 있는 세 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서주에 해당하는 1부를 지나 2부에서 세 개의 주요 주제가 소개되며, 4부에서 7부까지가 전

개부에 해당한다. 한차례 클라이맥스를 지난 후 8부부터는 재현부인데, 여기서는 2주제와 3주제가 주로 많이 등장하며 기교적인 확대를 극한까지 추구한다. 9부와 10부에서 한껏 팽창했던 스카르보의 장난은 속절없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듯한 허탈함은 라벨의 음악만이 연출할 수 있는 마법이다.

쇼팽 스케르초 1-4번

쇼팽의 독창적인 피아니즘을 가장 훌륭하게 설명하고 있는 스케르초 네 곡이 그의 생전에는 다른 작품들에 비해 크게 환영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의외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작품 속 나타나는 격렬한 분노와 음울한 절망감이 작곡가의 시적인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청중들 입장에서 바로 연결시키기 힘들어서였을 수도 있다. 쇼팽의 생애 결정적인 전환기마다 만들어진 이 걸작들은 그의 내면 속 충동과 공격적인 성향을 솔직하게 드러낸 기록이다. 하이든, 모차르트 시대의 미뉴엣을 대체하던 스케르초가 베토벤의 손을 통해 중요한 장르로 완성된 후, 이 흥미로운 춤곡은 낭만 시대에 들어서며 본격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된다. 멘델스존의 스케르초가 가벼운 정서와 신비로움을 풍겼다면 쇼팽의 작품은 어둡고 신랄하며 고집스러운 매력으로 넘친다. “농담이 검은 옷을 입고 돌아다닌다면 진담은 어떤 색의 옷을 입어야 할까.” 쇼팽의 스케르초에 붙인 슈만의 유명한 질문은 그 자체로 현명한 대답이다. 쇼팽이 제시한 이 농담들은 영혼 속 가장 진실된 소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바르샤바 공습으로 인해 쇼팽이 깊은 충격에 빠져있었던 1831년에서 이듬해에 걸쳐 만들어진 1번 b단조(Op. 20)는 처절한 비명처럼 느껴지는 두 개의 강렬한 불협화음으로 시작한다. 시종 불규칙한 프레이징으로 예상치 못한 폭발과 그로 인한 긴장감이 조성되

며, 도약과 반음계로 이루어진 모티브들도 방향을 거듭 한다. 3부 형식 중 중간부(트리오)에 들어있는 완만한 느낌의 선율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폴란드의 크리스마스 노래를 토대로 하고 있다. 후반부는 충실한 재현이며 어둠이 끝내 가시지 않은 채 마무리된다.

인상적인 도입과 곧이어 등장하는 매력적인 두 번째 주제로 인해 팬이 많은 2번 bb단조(Op. 31)는 쇼팽의 연애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여인 조르주 상드가 그에게 끈질긴 구애를 벌이던 1837년 경에 완성되었다. 이 시기는 그의 관심이 약혼녀 마리아 보진스카에게 더 향해 있었던 때이기도 하다. 1번과 달리 2주제는 Db장조로 부드럽고 밝음을 은유하며, 소스테누토와 소토 보체의 지시어로 차분히 시작하는 트리오의 모두 네 개의 악상이 반복하며 흥분을 더해 가는 대규모의 구성이다. 후반부 재현 후에 마지막을 장식하는 코다는 그때까지 쇼팽이 시도했던 최상의 화려함을 자랑하며 눈부신 마무리를 보인다.

허약한 육체라는 커다란 아픔을 안고 살았던 쇼팽은 그 래서인지 자신의 작품을 넘치는 에너지로 소화하는 연주자들에게 호감을 보였다. 스케르초 3번 c#단조(Op. 39)는 그의 제자로 역세고 투박한 연주 스타일을 지녔던 아돌프 구트만의 손으로 초연되었는데, 작품의 성향으로 보아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옥타브 유니즌으로 제시되는 1주제와, 조용한 상향 음형과 아르페지오로 이루어진 2주제는 극단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서로 다른 느낌의 분산화음들은 잦은 전조로 그 화려함을 더하며, 깔끔한 코다 역시 극적인 효과가 충분하다.

낙천적이고 모든 갈등 요소들을 넉넉히 수렴하는 행복감이 느껴지는 스케르초 4번 E장조는 네 곡 중 가장 대규모이며 그만큼 상상력의 스케일도 크다고 하겠다. 첫머리의 주제는 멜로디의 아름다움보다는 아기자기한 화음 진행과 가벼운 리듬감이 더 큰 매력으로 다가오며, 경과부에서 나타나는 선율들도 현란한 스케일로 꾸며진다. 거의 간주곡이라고 할 대규모의 트리오의 멜랑

콜리의 느낌으로 가득 찬 c#단조로 나타나며, 동경과 애상이 함께 느껴지나 이와 동시에 기분 좋은 편안함을 지닌다. 대규모의 종결부 역시 다채로운 빛깔의 트릴과 함께 작곡가의 후기작다운 원숙함을 나타낸다.

글 | 김주영 (피아니스트)



CREDIA

피아니스트 조성진

압도적인 재능과 타고난 음악성을 겸비한 조성진은 빠르게 국제적인 수준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으며 같은 세대의 연주자들 중 단연 두각을 나타내는 아티스트로 평가받는다. 이지적이면서도 시적이고, 확신에 차 있으면서도 감미롭고, 기교가 넘치면서도 색채감이 가득한 그의 연주에는 귀족적인 고고함과 순수성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데, 그의 타고난 균형감각이 어느 정도인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조성진은 2015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에 입상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조성진은 지난 2016년 1월,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가장 각광받는 연주자인 그는 베를린 필하모닉,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뮌헨 필하모닉, 베를린 도이치 교향악단, 파리 오케스트라,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같은 전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고 있으며, 정명훈, 이반 피셔, 야쿠프 흐루샤, 야닉 네제 세경, 지아난드레아 노세다, 안토니오 파파노 경, 예사 페카 살로넨과 같은 유명 지휘자들과 정기적으로 연주하고 있다.

조성진의 2021/22 시즌 하이라이트로는 알랭 알티볼뤼가 지휘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앤드류 맨츠 지휘의 밤베르크 교향악단, 외르크 비트만 지휘의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와의 데뷔 공연이 있다. 이 밖에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압 판 초베덴 지휘의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크리스티안 마첼라루가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 관현악단,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지휘의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재초청 공연도 예정되어 있다.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협연자로서 그는 세몬 비치코프 지휘의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상투 마티아스 로우발리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해외 투어에도 함께 한다.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성진은 세계 곳곳의 명망 높은 공연장들을 누비고 있다. 카네기 홀 키보드 비르투오소 시리즈의 일환으로 카네기 홀 메인 무대에 섰으며, 암스테르담의 콘세르트허바우에서는 마스터 피아니스트 시리즈로 무대에 올랐다. 베를린 필하모닉 콘서트 시리즈를 통하여 베를린 필하모닉 실내악홀에서 연주하였고, 산토리 홀, 로스앤젤레스 월트 디즈니 홀, 라 로크 당테롱 페스티벌, 베르비에 페스티벌, 그슈타트 메뉴인 페스티벌, 라인가우 페스티벌과 같은 여러 공연장에서 연주하였다. 이번 시즌에는 런던 위그모어 홀, 비엔나 콘체르트하우스, 뮌헨 프린츠레겐텐극장, 슈투트가르트 리더할레 홀, 몬테 카를로 레니에 극장과 스톡홀름 콘서트하우스 리사이틀 데뷔를 앞두고 있다.

조성진이 도이치 그라모폰을 통해 녹음한 첫 음반은 지아난드레아 노세다 지휘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과 쇼팽의 <4개의 발라드>로 2016년 11월에 발매되었다. 이후 2017년 11월에 드뷔시 독주곡을 담은 앨범이 발매되었으며, 2018년에는 야닉 네제 세경이 지휘하는 유럽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 라 단조>와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가 포함된 음반을 녹음하였다. 2020년 5월에는 슈베르트 방랑자 환상곡을 주제로 한 음반 <방랑자>가 발매되었는데 이 앨범은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 외에 베르크 피아노 소나타 1번, 리스트 피아노 소나타 b단조를 담고 있다. 그의 모든 음반은 전 세계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2021년 8월에는 쇼팽 피아노 협주곡 2번과 스케르초 전곡을 녹음한 음반이 출시되었다.

1994년 서울에서 태어난 조성진은 6세 때 피아노를 시작했으며 11세 때 첫 공개 연주회를 가졌다. 2009년에는 일본 하마마츠에서 열린 하마마츠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대회 최연소로 우승했으며 2011년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17세의 나이로 3위에 입상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파리 국립 고등음악원에서 피아니스트 미셸 베로프와 함께 공부하였으며, 이 기간에 피아니스트 알프레드 브렌델의 멘토링을 받기도 했다. 조성진은 현재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다.

Seong-Jin Cho, Pianist

With an overwhelming talent and innate musicality, Seong-Jin Cho has made his mark as one of the consummate talents of his generation and most distinctive artists on the current music scene. His thoughtful and poetic, assertive and tender, virtuosic and colourful playing can combine panache with purity and is driven by an impressive natural sense of balance.

Seong-Jin Cho was brought to the world's attention in 2015 when he won the First Prize at the Chopin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Warsaw. In January 2016, he signed an exclusive contract with Deutsche Grammophon. An artist high in demand, Cho works with the world's most prestigious orchestras including Berliner Philharmoniker, London Symphony Orchestra, Münchner Philharmoniker, Deutsches Symphonie-Orchester Berlin, Orchestre de Paris, and The Philadelphia Orchestra. Conductors he regularly works with include Myung-Whun Chung, Iván Fischer, Jakub Hrůša, Yannick Nézet-Séguin, Gianandrea Noseda, Sir Antonio Pappano and Esa-Pekka Salonen.

Highlights of Seong-Jin Cho's 2021/22 season include debuts with the Gewandhausorchester Leipzig with Alain Altinoglu, Bamberger Symphoniker with Andrew Manze and Mozarteumorchester with Jörg Widmann. He returns to the LA Philharmonic and New York Philharmonic, each under their respective Music Directors as well as Orchestre National de France with Cristian Măcelaru and Konzerthausorchester Berlin with Christoph Eschenbach. A highly sought-after touring soloist, Cho embarks on several international tours, including those with the Czech Philharmonic Orchestra and Semyon Bychkov as well as Philharmonia and Santtu-Matias Rouvali.

An active recitalist very much in demand, Seong-Jin Cho performs in many of the world's most prestigious concert halls including the main stage of Carnegie Hall as part of the Keyboard Virtuoso series, Concertgebouw Amsterdam in the Master Pianists series, Berliner Philharmonie Kammermusiksaal, Suntory Hall Tokyo, Walt Disney Hall Los Angeles, Festival International de piano de la Roque d'Anthéron, Verbier Festival, Gstaad Menuhin Festival and Rheingau Musik Festival. During the coming season he gives debut solo recitals at Wigmore Hall London, Konzerthaus Vienna, Prinzregententheater Munich, Liederhalle Stuttgart, Auditorium Rainier Monte-Carlo and Konserthuset Stockholm.

The first recording with Deutsche Grammophon was released in November 2016 featuring Chopin's Piano Concerto No. 1 as well as the Four Ballades with the London Symphony Orchestra and Gianandrea Noseda. A solo Debussy recital was released in November 2017, followed in 2018 by a Mozart album with the Chamber Orchestra of Europe and Yannick Nézet-Séguin. Cho's latest album on the Yellow Label, titled *The Wanderer* and released in May 2020, features Schubert's "Wanderer" Fantasy, Berg's Piano Sonata op. 1 and Liszt's Piano Sonata in B minor. All albums won impressive critical acclaim worldwide. Cho looks forward to the release of Chopin's Piano Concerto No. 2 and the Scherzi in August 2021.

Born in 1994 in Seoul, Seong-Jin Cho started learning the piano at the age of six and gave his first public recital aged 11. In 2009, he became the youngest-ever winner of Japan's Hamamatsu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In 2011, he won Third Prize at the International Tchaikovsky Competition in Moscow at the age of 17. From 2012-2015 he studied with Michel Béroff at the Conservatoire National Supérieur de Musique de Paris and has been mentored by Alfred Brendel. Seong-Jin Cho is now based in Berlin.



Chopin | 2016 Piano Concerto No.1 / Ballades

‘그 어떤 것도 쇼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전부 음악이었다.’ - The Guardian

‘시적이고 사색적이며 우아한 그 모든 것’ - Financial Times

쇼팽 콩쿠르 피날레를 장식하고 조성진에게 우승을 안겨주었던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의 정식 스튜디오 녹음이 담긴 앨범

지아난드레아 노세다와 함께한 쇼팽 피아노 협주곡 외에도 발라드 전곡, 녹턴 20번 수록



Debussy | 2017

‘장엄함과 민첩함, 그리고 열정이 더해진 특별한 조합의 드뷔시를 보여주었다.’ - The Telegraph

‘지나침이나 과시적임 없이, 넷물처럼 맑고 반짝이는 손가락 움직임과 시의 훌륭한 조합’ - Financial Times

드뷔시 사후 100주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념한 앨범

어릴 적부터 좋아한 프랑스 작곡가 드뷔시의 음악 수록 / ‘달빛’, ‘영상 1, 2집’과 ‘어린이 차차’



Mozart | 2018 Piano Concerto No.20 K.466 / Sonatas K.281 & 332

‘조성진은 자연스러우면서도 무게감 있는 진정한 ‘모차르트형 인간’임을 증명했다.’ - The Times

야닉 네제 세겜이 지휘하는 유럽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 수록

CREDIA



Mozart | 2019 Rondo in A Minor, K. 511 / e-single

‘모차르트의 작품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멜랑콜리한 느낌이 신선했습니다’ - 조성진

‘론도 K. 511’는 단조와 장조를 넘나드는,

모차르트 피아노 솔로 중에서도 손꼽히는 작품



The Wanderer | 2020

유럽의 대표적인 콘서트 피아니스트로 우뚝 선 조성진의 신보

처음으로 한 작곡가가 아닌 슈베르트-베르크-리스트를 묶어

조성진의 깊어진 음악적 세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음반

슈베르트 방랑자 환상곡 / 베르크 소나타 Op. 1 / 리스트 소나타 S. 178 수록



Chopin | 2021 Piano Concerto No. 2 / Scherzi

쇼팽 피아노 협주곡의 완성

피아노 협주곡 2번과 함께 더욱 대담하고 정열적인 ‘4개의 스케르초’를 담아

쇼팽의 또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음반

쇼팽 피아노 협주곡 2번 / 스케르초 전곡 / 에튀드 ‘혁명’과 녹턴 등 수록



조성진,

쇼팽 콩쿠르 우승으로부터 6년 후
더 원숙해진 연주로 쇼팽을 완성하다

[쇼팽 피아노 협주곡 2번, 스케르초]

OREDIA



디럭스 버전

에워드 '혁명', 즉흥곡 1번, 녹턴 2번 추가 수록
초도한정 포토카드 증정

조성진의 쇼팽, 과감하게 변화하다

‘물 흐르듯이(like water)’. 딱딱한 건반 앞에 앉은 피아니스트에게 큰 숙제다. 이 나뉘어 있는 건반을 어떻게 연결한단 말인가. 오히려 가르기가 힘든 물처럼 이를 방법은 무엇인가.

프레데리크 쇼팽의 음악과 물의 심상은 오랫동안 함께했다. 어느 정도였나면 쇼팽이 지긋지긋해질 만큼이었다. “내 음악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라이크 워터!’라는 말로 끝난다. 음악이 꼭 물 흐르는 것 같다는 뜻이다.”(〈위대한 작곡가들의 삶 1〉, 해럴드 C. 손버그 후원자의 초청으로 영국에서 연주한 쇼팽이 파리에 보낸 편지 중 일부다.

건반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이 어떻게 물처럼 흘러갈까. 2015년 쇼팽 국제 콩쿠르의 실황 중에 조성진의 연주가 그렇다. 셋여림과 멜로디 흐름은 물이 조금씩 번지듯 자연스럽다. 속도나 악상이 변할 때, 볼륨이 확장하거나 작아질 때 그 이음새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어느새 멀리까지 와버린 액체와 같이 음악도 변화한다.

콩쿠르 첫 라운드 of the 첫 곡은 녹턴 c단조였는데, 정적인 첫 부분이 왼손의 난폭한 옥타브로 깨질 때조차 표현은 급작스럽지 않다. 소리의 크기는 통제되고, 하나의 태도가 유지된다. 그 다음 곡인 연습곡 Op.10의 10번을 들으면 6도 화음이라는 까다로운 테크닉마저 액체처럼 연결돼 나갈 수 있단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펼침화음으로 이어지는 Op.10 중 1번의 부드러움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영국 여자들 중에 내 연주에 대한 감상을 얘기하면서 ‘라이크 워터!’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아직 본 적이 없다.” 쇼팽 편지의 뒷부분이다. 2015년 폴란드 바르샤바의 조성진 연주도 그런 감상을 불러일으킨다.

6년 전의 부드러움을 기억하고, 가장 최근 조성진의 쇼팽을 듣는다. 2021년 8월 나온 음반 수록곡 중 미리 공개한 스케르초 2번이다. 흔히 ‘순진한 질문’으로 불리는 짧은 도입부 몇 음은 조성진의 연주에서 어둡고 심각하다. ‘응답’과도 같은 화음은 깨어질 듯 부서진다. 피아니시모(pp)와 포르테시모(ff)의 격차가 크다. 이제 조

성진은 포르테시모가 나올 때마다 온 정신을 집중하도록 만드는데, 그 덕분에 중간 부분의 서정적 내림 라 장조는 상대적으로 더 처연한 노래가 된다. 쇼팽이 '이탈리아의 성악가들처럼 연주해야 한다'고 했던 그 부분이다. 조성진의 2021년 스케르초 2번만큼은 '라이크 워터!'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불, 또는 얼음 쪽에 가까이 간 쇼팽이다.

쇼팽의 스케르초에는 에너지가 있다. 조성진이 6년 전 쇼팽 콩쿠르의 3라운드에서 연주한 스케르초 2번 역시 마냥 부드러웠다고 말할 수 없다. 마르타 아르헤리치가 조성진의 우승 소식을 전하며 링크했던 영상에서 조성진의 스케르초 2번은 적당한 에너지를 유지한다. 2021년의 스케르초에서는 그 힘이 더욱 과감하게 끝까지 간다. 과감한 음악은 몇 년 전부터 조성진의 무대에서 눈에 띄도록 발견됐다. 2018년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와 함께 한 베토벤 소나타 7번을 기억해보자. 한숨을 쉬듯 노래하는 느린 악장에 느닷없는 포르테시모가 나온다. 나긋하던 바이올린이 잠시 쉬는 사이, 피아노 혼자서다. 피아노는 다 장조 스케일을 갑자기 빠르게 두 번 휘몰아치고 나서 태연하게 다시 바이올린과 아다지오 칸타빌레를 부른다. 몇 마디 지나지 않고서는 바이올린과 함께 그 포르테시모를 재연한다.

정경화와 조성진은 이 급작스러움을 정확하게 이해해 천둥처럼 선언해버렸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먼저 폭발한 조성진이었다. 정경화가 기자간담회에서 "벼락 떨어지는 스케일을 그렇게 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성진은 평소에 화도 잘 안 낸다는데"라고 했을 정도다. 그 정도로 급작스럽고 선명하게 포르테시모를 몰아붙인, 웅감한 해석이었다. 그렇게 조성진은 청력을 잃어가는 베토벤의 절망감을 거대한 에너지로 치환했다.

그다음은 모차르트였다. 2019년 경남 통영에서 조성진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연주한 협주곡 20번은 비극적 에너지가 특징이었다. 언젠가 안드라스 시프가 베를린필과 협연 무대에서 이 곡을 '돈 조반니' 서곡과 함께 연주했듯, 조성진 또한 이 협주곡의 정서를 비틀린 어

두움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오케스트라의 불길한 도입부 직후 조성진이 손을 들어 사인을 보내자 놀랄 만큼 강렬한 소리가 쏟아졌다. 대담하고 드라마틱한 모차르트였다. 갑작스럽게 작은 음과 거대한 큰 소리가 교차했다.

이렇게 선보인 선명한 음악이 2021년 무대의 힌트였다. 콩쿠르 이후 오랜만에 쇼팽으로 돌아오는 조성진이 스케르초를 고를 것이라는 데 대한. 일평생 병약하고도 섬세했던 쇼팽이 '라이크 워터!'에 반박하듯 직조해낸 힘의 음악이다. 유려한 멜로디보다 신경질적인 프레이즈들이 더 기억에 남는 작품은 스케르초 말고는 쇼팽에서 별로 없다. 쇼팽 콩쿠르에서 세계로 도약했지만, 쇼팽에만 머물러있을 수는 없는 조성진이 고를만한 곡들이기도 하다. 이번 공연 후 한국의 청중은 어떤 감상을 내놓게 될까. 라이크 '○○'?

글 | 김호정 (중앙일보 문화팀 기자)

워너클래식이 선택한 완벽하고 짜릿한 사운드



CREEDIA DUO

문태국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베트벤 모차르트 '마술피리' 중 "사랑을 느끼는 남자들은" 주제에 의한 7개 변주곡, WoO 46

멘델스존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2번 D장조, Op.58 | 라흐마니노프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단조 Op.19

2021.11.30 TUE 7:30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피아노 건반이
들어오는 *My Eye*

아티스트의
감동적인 표정까지
들어오는 *My Eye*

검증된 **눈건강** 영양제


천연 사프란, 클로로겐산 함유
Luxan 룩산

검증된 황반보호 천연캡슐
아이룩스

www.theyekr.com | 문의 02.486.2330

THEye (주)한국디아이

피아노의 시인의 영혼에 한 발짝 더 다가가다

가장 좋은 연주란 연주자와 청중 모두가 그것을 경험한 후 마음속 물음표가 생겨나는 연주라고 늘 생각해 왔다. 연주자의 입장에서 그 물음표가 '희망'으로 채워질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곤 했다. 새롭게 나아갈 방향이 보이고 한 계단 더 높은 곳으로 나를 옮길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늘 고민 속에 빠져 살아야 하는 음악가가 버틸 수 있는 에너지 그 자체다. 자신의 예술 세계에 끊임없는 호기심을 통해 물음표를 키우고, 그 물음표를 새로운 발견에 대한 열망을 통해 '느낌표'로 바꿔가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바, 정상적 음악가 조성진에게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으로서 지닌 예술가적 본질과 그 실현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멈추지 않고 그 의문들을 통해 존재감을 자연스럽게 키워가고 있는 조성진의 움직임은 그래서 늘 흥미진진하다. 2015년의 승리 후 6년이 지난 지금에도 쇼팽의 현역 챔피언이며, 여전히 푸릇한 20대인 조성진의 발걸음을 짚어봐야 하는 이유는 이 시간에도 멋진 모습으로 씩씩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의 느낌표들 때문이다.

변화는 2015년 말부터 시작되었다. 콩쿠르 이후 훌쩍 늘어난 스케줄을 소화해내야 했던 조성진이 당시 무대에서 반복해서 다뤘던 쇼팽의 프로그램들은 현재의 모습과 흥미로운 차이를 보인다. 스스로 콩쿠르 당시와 그 이후 보였던 해석들은 부분적으로 매우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꼼꼼하게 챙기려는 느낌이 강했다고 회상했으며, 쇼팽 연주에 있어서는 가면 갈수록 긴 호흡과 전체의 구도를 많이 생각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2016년 말에 소개된 도이치 그라모폰 데뷔 앨범에서의 발라드는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뜨거움과 열정적인 비르투오시티가 전면에 흘러넘쳐 강한 인상으로 다가왔다. 2018년 1월 리사이틀에서 들려주었던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3번은 젊은 피아니스트의 에너지가 분출되며 그려지는 이상적인 형태의 결과물로 오래 기억된다. 과감한 루바토와 한계 직전까지 몰아붙이던 템포 감각, 선율선이 극명하게 드러나도록 설정한 다이내믹 레인지의 변화무쌍함은 실

황에서만 느낄 수 있는 짜릿한 쾌감을 선사했다.

2017년 11월 발표된 드뷔시 앨범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고도의 세공'이었다고 하겠다. 세련된 분위기와 편안한 흐름의 모음곡 '영상'도 훌륭했지만, 지금도 방송 등에서 꾸준히 리퀘스트를 받는 '어린이 차차'는 매끈한 손가락의 움직임과 소름이 끼치도록 세분화된 악상 조절을 통해 지적인 매력과 화사한 프랑수아 에스프리를 듣는 이들이 소화하기 좋게 풀어 놓은 호연이었다. 유명한 '달빛'이 수록된 베르가마스키 모음곡은 오히려 다른 세 곡이 묻힐까봐 아쉬울 정도의 균형 잡힌 해석으로 채워졌으며, 작품에서 요구되는 명인기가 인상파적 사운드에 교묘하게 흘러들어간 '기쁨의 섬'도 결코 잊을 수 없다.

조성진의 손은 대다수의 피아니스트들이 갖고 싶어 하는 손이라는 것을 이 기회에 밝혀두고자 한다. 긴 손가락과 넓은 손등이 코드를 짚거나 아르페지오를 연주하기에 유리한 조건이기도 하지만 어딘지 섬세하고 '예쁜' 손 모양이기도 하다. 2018년 가을 공개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과 소나타 앨범은 그가 지닌 음악적 센스의 유연함을 그 날렵한 손가락들을 통해 유감 없이 발휘한 결과물이었다. 즉흥적인 표현에도 능하지만, 조성진은 하나의 프레이징을 연주하더라도 그 안에서 수없는 음영을 찾아내 자신이 원하는 소리가 만들어질 때까지 바꾸고 고쳐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모차르트의 선율미와 정중동으로 표현되는 드라마의 흥미진진한 연출까지, 피아니스트이기도 한 감성과 지휘자 야닉 네제 세경과 함께 그려낸 피아노 협주곡 20번의 뒷맛은 개운하면서도 상큼했다. 함께 실린 소나타 F장조 K.332의 매끈한 조형미 역시 작곡가 자신이 무척 좋아했을 만한 모습이었다.

슈베르트와 베르크, 리스트의 마스터피스들을 모았던 2020년 앨범 '방랑자'는 여러 작곡가의 곡을 함께 수록하기 위해 고려해야 했던 컨셉에 대한 고민을 연주자 나름대로 해소한, 의미 있는 변화의 순간이 담긴 기록이다.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겪어야 했던 작곡가들의 고

뇌, 그 생생한 과정이 여과 없이 담긴 세 개의 문제작은 조성진의 탁월한 분석을 통해 매력적인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특히 리스트의 소나타 b단조는 골고루 다듬어진 사운드로 전곡의 구조를 명확히 그려낸 스튜디오 레코딩에 더해, 코로나 팬데믹을 뚫고 성사된 2020년 11월의 독주 무대에서는 아기자기한 악상 표현과 더욱 강력한 타건으로 최상의 비르투오시티를 과시했다.

당시 무엇보다 흐뭇했던 점은 지극히 자연스러움을 지향했던 그의 음반 속 표정들이 라이브 무대와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과, 청중들에게 건네는 메시지에 깊은 배려와 친절함이 더해졌다는 사실이었다. 시마노프스키의 모음곡 '마스크'를 연주하기 전,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20세기의 작품들을 선택하는 이유는 나에게 도전이 될과 동시에 청중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드리기 위함'이라고 했던 연주자의 말은 무대에서 충분히 실현되었다. 폴란드 작곡가가 그려낸 미국적인 인상주의와 20세기 초 혼란스러운 유럽의 은유까지 담긴 '마스크'의 세 악장을 조성진은 호쾌한 박력과 솔직 담백한 루바토, 질은 페달링으로 요리하며 작품 속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분명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내는 데 성공했다.

참으로 오래 기다려 온 새로운 쇼팽 음원은 우선 스튜디오 녹음임에도 청중들에게 매우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이 눈에 띈다. 마치 라이브를 듣는 것처럼 살아있는 호흡과 터치로 텍스트를 연주하면서도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현명한 자세를 통해 작품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날날이 체현할 수 있게 해준다. 쇼팽의 내면 속 공격적인 성향과 예측 불가능한 영감의 폭발을 다른 스케르초와, 위기에 빠진 조국과 동포를 위해 울부짖듯 써 내려간 '혁명' 에튀드의 격한 감정은 이로써 우리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온다. 피아노의 시인의 영혼을 한 발짝 더 가깝게 느끼게 해 주는 조성진의 새 모습은 팬들에게 그 자체로 기쁨이자 희망이며 또 다른 느낌표가 아닐 수 없다.



CREDIA





BVLGARI
ROMA

CREDIA

CREDIA MUSIC & ARTISTS

이 프로그램은 Club **BALCONY** 후원회 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www.clubbalcony.com에서 공연을 예약한 후원회원에 한함]

www.credia.co.kr



CREDIA Music & Artists 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 Music & Artists 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 Music & Artists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크레디아 페이지(www.credia.co.kr)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REDIA Music & Artists

www.credia.co.kr